

# 1888년 기별과 흔들림

(The 1888's Message and a Shaking)

---

2016년 장막 집회

(8. 14)

강운산

([www.thelastvoiceofGod.com](http://www.thelastvoiceofGod.com))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Having therefore these promises, dearly beloved,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filthiness of the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 2 Cor 7:1)

## 흔들림(The Shaking)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 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초기, 270)

# 흔들림(The Shaking)

---

##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수용)

기별을 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

(거절)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기별에 대항하여  
일어남

## 라오디게아 기별은 1892년에 교회에 주어짐

---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하라.”(계 3:18)

- “라오디게아 기별이 소리를 발하고 있다. 이 기별의 각각의 모든 국면을 취하여 길이 열려지는 곳마다 백성에게 그것을 울려 퍼지도록 하라.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부패되어가는 세상에 제시되어야 할 주제이다.**”(SDA 성경주석 7권 964)

## 1888년 기별의 요약

---

1. 주님의 크신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완전한 확신 가운데 받아 들일 수 있는 기별
2.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신 구세주를 세상 앞에 더욱 높이고 크게 전하는 기별
3. 하나님께서 인간 위에 베푸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의 기별  
(영원 전부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기별)

## 1888년 기별의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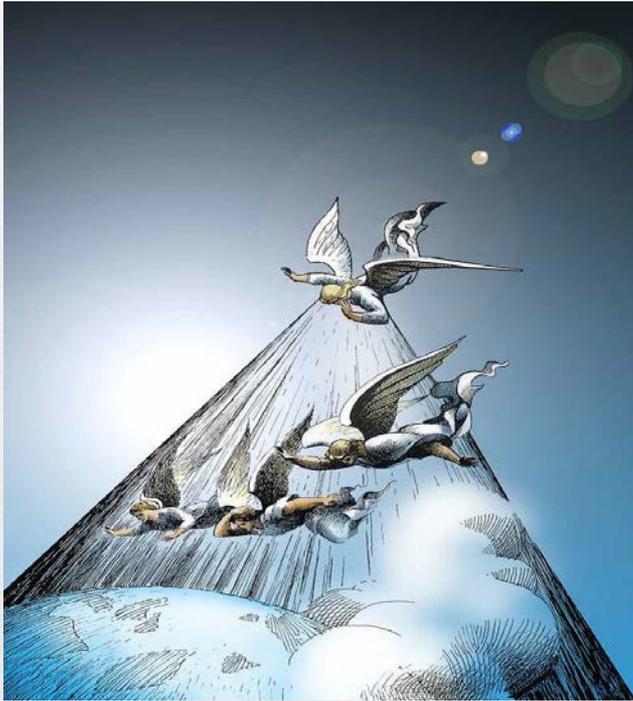
4.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기별로 그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데 나타남

(나눠주시는 그분의 의(義)의 선물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임)

5.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기별

6. 큰음성으로 외쳐지고 성령의 부으심이 크게 나타날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늦은비 기별 (온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기별)

## 왜 1888년 기별이 필요했는가?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초기, 277)

## 왜 1888년 기별이 필요했는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과를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 가고 있다.”(교회증언 8권 118, 119)

## 왜 1888년 기별이 필요했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위한 열성의 부족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범죄 중에 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편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발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영혼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비와 무감각이 있다.”(교회증언 8권 118, 119)

## 1888년 기별은 교회와 그 백성에 의해 거절되었다.

“...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와그너와 [A.T.]존스 두 목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 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1 기별 293)

---

**무엇이 거절되었는가?**

##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거절

“나는 한 사업이 백성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안다(이른 비의 경험).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대 영혼이 무익한 것을 계속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그리스도의 나눠주시는 의)을 받기 위해 늦은 비 때에 영예로운 그릇으로 발견되리라고 생각지 말라.”(목사, 468, 469)

##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

---

“무엇이 이 시기에 주어질 기별인가?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나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채울 빛은 현대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멸시 받아 왔다.

그대들이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조심하라.

어떻게 여러분이 사단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모욕을 하고 있는지 그대들은 알라.”(목사 89, 90)(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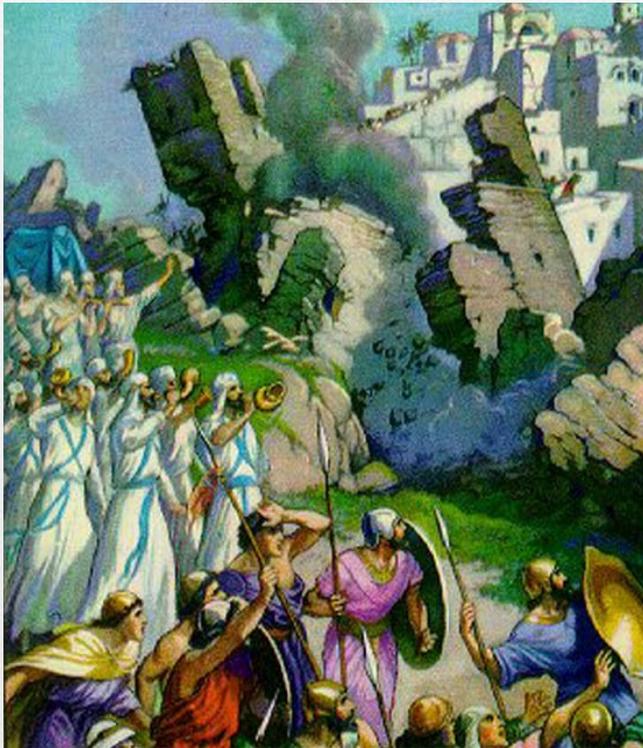
##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며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밝힐 그 빛은 그의 점진적인 영광 중에 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거짓 빛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관계는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율법과 복음이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완전한 일치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제시될 수 없을 것이다.”**(RH 1890. 3. 27)

##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456)(1892.11.22)

## 큰 외침, 곧 늦은 비를 거절

“자! 형제들이여, 미네아폴리스에서 그당시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회중가운데 얼마는 말했다. “**큰 외침**”)

무엇이 그 의의 기별입니까? 증언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큰 외침 곧 늦은 비입니다.**

그러면 서기를 두려워하는 입장에 있던 형제들은 미네아폴리스에서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그들은 늦은비 곧 셋째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을 거절**했습니다.”(AT존스, 대총회 회보, 183)

## 성화의 기별을 거절

“어떤 사람들은 의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여 ‘베푸는 의’를 원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오는 의를 바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사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력으로 옷 입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보기에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더러운 옷 외의 아무것도 입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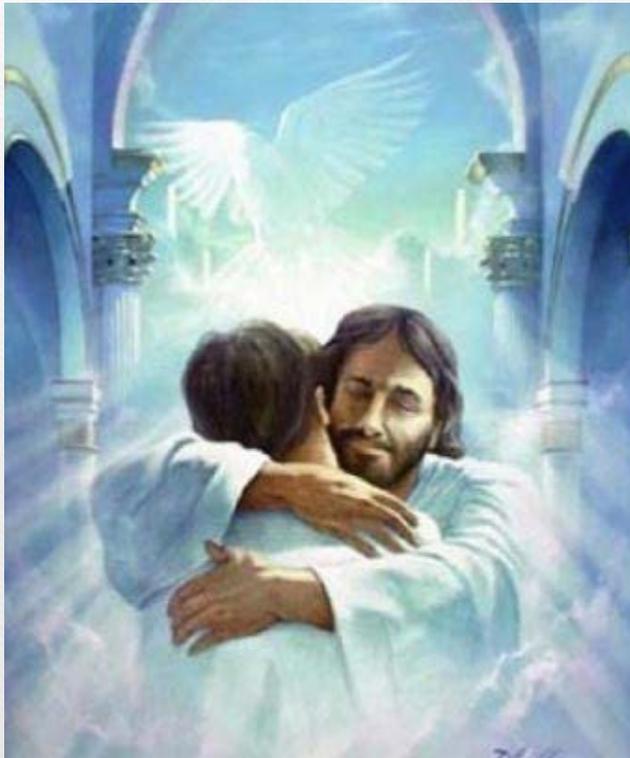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면, 그것은 경멸되거나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와그너, 그리스도와 그의 의, 64, 65)

## 율법을 지킬 능력을 거절



“그리스도는 사람의 과거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지시며 그분의 의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SDA 성경주석 6권 1092)

## 거룩함에 이르는 기별을 거절



“**현대 기별**-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며,

그것은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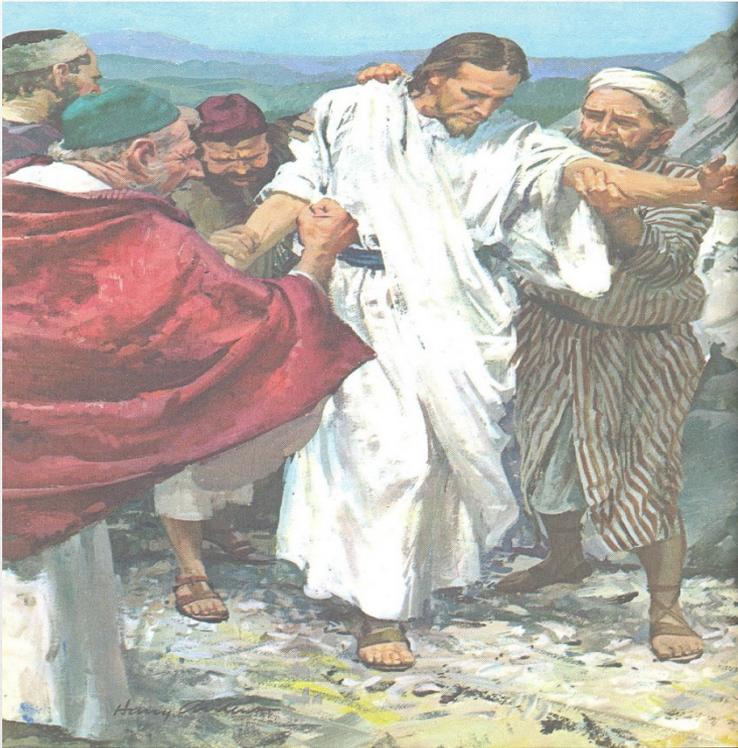
왜냐하면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이다.”(1 기별 359,  
1889 9월 3일)

## 참 신앙을 거절



“참 신앙, 곧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신앙인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가르치는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옹호하는 신앙이 가볍게 취급되어 왔고, 거역하는 말을 들어왔으며, 어리석게 취급되었으며 거절을 받아왔다.”(목사, 468, 1890.11.3)

##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저항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똑같은 땅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운 대접을 하늘의 모든 거민이 목격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을 대했을 것입니다.”  
(특별증언시리즈 6, 19)

## 그들이 거절한 것들

---

1.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기별
2. 셋째 천사의 기별과 큰 외침, 늦 은비를 거절
3. 성화의 능력(율법을 지킬 능력)을 거절
4. 거룩함의 능력을 거절
5. 참 신앙을 거절
6. 그리스도를 거절

## 1888년 기별로 인한 흔들림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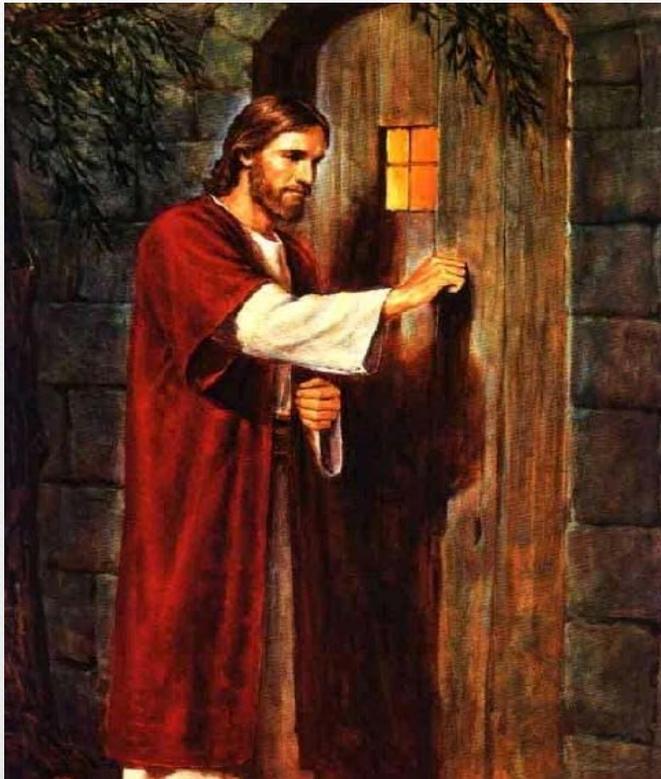
---

(시작) 라오디게아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시작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화의 문제**

(핵심)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줄 수 있는가? 혹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가?이다.

## 흔들림의 결과 -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짐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뉴스레터 교육 No.6, 1898).

## 흔들림의 결과 - 교회의 세속화

---

“예수의 종교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과 섞여 있다.

언약궤가 이 백성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것인가?

우상들이 교회 내로 밀수될 것인가?

거짓된 원칙들과 교훈들이 성소 내에 파급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남은 백성이 되게 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교리들과 원칙들이 무시될 것인가?”(1890 원고 29)

## 흔들림의 결과 - 교회의 부패

---

“사업의 중심부에서 모든 다른 기관이 같은 노선을 따라가도록 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대총회 그 자체도 그릇된 사상들과 원칙들로 부패되어 가고 있다.

베들크릭에서 매우 오랫동안 사건들을 지배했던 동일한 원칙들이 사업 계획 가운데 나타나 있다.”(목사, 359, 1895)

## 흔들림의 결과 - 교회의 배도



“교회가 자신의 배도로 지금 영향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키지 않는 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8중언, 249, 250, 1903)

## 흔들림의 결과 - 고의적으로 악을 택함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많은 빛과 지식을 가졌던 자들이 고의적으로 선(善)대신에 악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개혁하고자 시도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져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 속에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7중언, 62, 1902).

## 흔들림의 결과 - 바벨론으로 향함

---

“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길과 금지된 길로 이끄는 교리들,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의 경향과 일치되게 행동하게 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게 하는 교리들,

만일 받아들이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위엄과 능력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기구들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게 될 빛을 가리어 버리는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었다.””(8 증언, 231, 1903).

## 흔들림의 결과 - 교회를 나누어 놓음

### (기별 거절)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쟁투, 608)

### (기별 수용)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사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을 자기에게 예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는 타락한 교회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그의 절대권을 거부하고 있는 작은 무리가 여기에 있다.” (5증언, 473)

# 1914년 8월 8일 안식일 학교 교과

---

(옛원칙)

“당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명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  
(하트랩, p. 91)

(새원칙)

1914년 8월 4일(화),  
독일정부의 전쟁선포에  
대한 재림교회의  
새로운 공식적 입장은  
성경과 반대.

# 1914년 전쟁은 교회를 시험

---



98%



2%

# 교회가 둘로 나누어짐



모교회-다수



남은 무리-소수

# 교회가 둘로 나누어짐



우상을 섬기는 교회



율법을 세우는 무리

---

**그대는 기별을 받아들였는가?**

## 성화를 위해 애쓰자

---

“성화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자신의 것을 남김 없이, 영혼과 몸과 정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고 공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을 품고, 순결하고, 이기심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다.”(원고, 65, 1886)

## 성화를 위해 애쓰자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화된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은 무조건, 진리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변화케 하는 능력에게 남김 없이 우리의 영혼을 복종케 하여야 할 것이다.”**(R&H 1892.4.12)

## 거룩하게 될 수 있다.

---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모든 관계하심에 있어서의 그의 목적은 우리의 성화이다.

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 자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으며, 우리들은 그의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R&H, 1904년 1월 28일).

## 성화를 이룰 때까지 흔들림은 계속됨

---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 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써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교회증언 6권 332)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간에 맹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9권, 15, 16).

## 참된 성화를 이루는 방법

“참된 성화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는 신자의 생애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은 죄를 강렬하게 혐오하고 의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곧 매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눈길 가운데 거함을 뜻한다.”(SDA 성경 주석, 고후 7:1)

## 죄를 끝내는 백성이 되자

“남은 백성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용서만 구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동안, 우리 몸의 성전에서도 죄가 도말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쟁투 425).

---

**승리를 기원합니다!**